

9월 27일(월) / 속 9-11

▶ 내용요약 : 스가랴 9장에는 이웃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와 시돈,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다. 그러나 시온의 딸에게는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께서 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어서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고, 고국에 돌아오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견고하게 될 것이다. 한편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상수리나무 비유를 통해 요단의 자람이 쓰러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써, 그 어떤 권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할 수 없음을 보여주셨다.

▶ 질문 : 아래의 빈칸을 각각 채우시오. (9장)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이다 보라 네 ()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로우시며 ()을 베푸시며 ()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 생각하기 : 교만은 첫 사람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교만이다.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자.

9월 30일(목) / 마 1-3

▶ 내용요약 :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번째 책이다. 1장에는 예수님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자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다. 한편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된 요셉은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다. 그러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후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2장에서는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한편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 왕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쳤다 가 헤롯이 죽은 후에 돌아와 갈릴리 나사렛에서 거주하였다. 한편 3장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증언했다. 이후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으셨다.

▶ 질문 :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 세 가지는? (2장)
▶ 생각하기 :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만약 예수님의 성육신이 없었다면, 우리들 중 그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온전한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자(더 깊은 묵상을 위해 빌립보서 2:1-11을 읽으라).

10월 3일(일) / 마 10-12

▶ 내용요약 :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임을 알려주셨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교훈하셨다. 한편 11장에서 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제자들을 보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을 세례 요한에게

9월 28일(화) / 속 12-14

▶ 내용요약 : 스가랴 12-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다. 그날에는 천하만국에 이스라엘을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가장 약한 자가 다윗과 같이 되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으며,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와 사자 같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날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우상은 떠나가고, 거짓 선지자들도 사라질 것이다. 14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와 날에 대해서 선포하셨다. 그 날은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구원의 날이었다. 심판은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들에 임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멸망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높이 세우실 것이다.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고 평안히 서게 될 것이다.

▶ 질문 : 그 날에 무엇의 이름이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시는가? (13장)
▶ 생각하기 : 선지자들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준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신뢰하자.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10월 1일(금) / 마 4-6

▶ 내용요약 :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 광야로 가셨다.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죄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셨다. 이후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다. 5장에서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진정한 복에 대해서, 선한 삶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의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 맹세와 원수 갚는 일 등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 이어서 6장에서는 구제와 기도, 금식의 방법에 대해서,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교훈하셨다.

▶ 질문 : 예수님께서서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하셨는가? (6장)
▶ 생각하기 :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산에 오르셔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 예수님의 교훈은 보다 더 본질적이었고, 심지어 때로는 더 엄격했다. 누군가가 오해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을 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즐거워하게 하시는 참된 구원의 능력자이다.

그대로 전해주라고 하셨다. 이는 메시아의 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었으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다. 12장에서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다 더 본격적으로 대적하기 시작했다. 안식일에 대한 논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경고하셨다. 또한 표적을 구하는 약한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도 하셨다.

9월 29일(수) / 말 1-4

▶ 내용요약 : 말라기는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이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증언하셨다. 이스라엘은 의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고, 온전하지 못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또한 거짓을 버리고 행위를 온전하게 하며, 약자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중단하라고 하셨다. 3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다. 4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을 위한 소망과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여호와와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다.

▶ 질문 :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선지자는? (4장)
▶ 생각하기 : 구약의 마지막 책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교훈하시고 동시에 가장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날을 기대하게 하셨다. 우리가 지금 가장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자.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도록 은혜를 구하자.

10월 2일(토) / 마 7-9

▶ 내용요약 : 마태복음 7장에서도 산상수훈은 계속된다. 먼저 예수님은 위선적 비판의 태도를 버리라고 하셨다. 또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누가복음에 의하면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뿐만 아니라 열매를 통해 나무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심으로써 행함이 없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경고하셨다. 한편 8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으며,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사역이었다. 이후 9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셨다.

▶ 질문 : 아래의 빈칸을 각각 채우시오. (7장)
“()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 생각하기 :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 없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참된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고, 행함을 통해 믿음이 드러난다.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도록 날마다 은혜를 구하자.

▶ 질문 : 아래 빈칸을 각각 채우시오. (11장)
“()하고 ()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 생각하기 : 반기독교적 세계관이 지배적인 현대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복음으로 인해 미움을 받거나 심지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자.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담대한 복음전도자로 살아가자.